

서울시회, 중소병·의원회원협의회 구성준비 회의 열어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회되기 위해 노력하겠다”



서울시회는 10월 7일(수) 협회 회의실에서 중소병·의원회원협의회(가칭) 구성준비 회의를 개최하였다. 서울시회 회장단과 각 지역 중소병·의원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의 주요

토론 내용은 ▲중소병의원회원협의회(가칭)구성 취지 및 목적 ▲건강검진기본법에 관한 건 ▲회원·비회원의 보수교육 차등화에 관한 건 ▲서울시회 사업추진계획에 관한 건 ▲실질적인 보수교육 향후 진행의 건 ▲중소병·의원회원 정책지원의 건 등 중소병·의원 회원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효율적이며 활발한 논의가 있었으며 향후 서울시임상병리사회 중소병·의원회원협의회를 정식 발족하기로 했다

서울시회, '제4회 해외학회지원 및 국내학회지원 추첨'

양만길 회장, “회원 학술활동지원 아끼지 않겠다”



서울시회는 '제4회 해외학회지원 및 국내학회지원 추첨' 행사를 가졌다.

지난 8월 22일(토) 협회 회의실에서 있었던 ASCPi 5기 종강식에서는 양만길 서울시회장, 안용호 중앙회장, 유광현 행정부회장, 조경진 교수, 황

선철 교수, 심문정 교수가 추첨에 참여했으며, ASCPi 수강생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보람(제일병원), 신명순(원자력병원)회원이 당첨자로 선정됐다.

9월 30일(수) 서울대학교병원 A강당에서 열린 제2차 보수

교육에서는 서울시 집행부 임원과 중소지역에 근무한 병·의원 회원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첨을 통해 3명을 선정했다. 당첨된 회원은 제선자(성여병원), 유혜선(희망병원), 박연숙(한국화학연구소 여의도역) 회원이었다.

당첨자는 해외학회 참석시 50만원을, 국내학회 참석시 1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한편 보수교육 이후에 이벤트를 통해 문화상품권 5만원권을 지급하는 행사도 함께 열어 김미진(한국화학연구소 여의도역), 김영미(대한항공부속의원), 이선영(아시안항공), 오지현(세란병원) 회원이 당첨됐다.

한일 연골재생 첨단 치료법 교류

심포지엄 세포치료 조직공학 접근 모색

아주대의료원이 개원 15주년을 맞아 히로시마 대학병원과의 협약체결을 기념하여 '연골치료와 골 관절염 치료의 발전 현황'을 주제로 지난 10일 한일 국제 심포지엄을 열었다.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서울호텔 2층 오키드홀에서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전세계적으로 유병률이 높은 '골관절염'

에 대해 궁극적 원인인 연골손상과 연관된 연골재생을 위한 세포치료와 조직공학적 접근방법에 대해 집중적으로 토론했다.

특히 연골분야의 세계적 학자인 Mitsuo Ochi 교수가 연자로 참석하여 이 분야를 연구하는 임상적, 기초적, 연구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노벨의학상, '텔로메라아제' 발견 차지

2009년 노벨 생리의학상은 텔로메라아제(telomerases) 효소를 발견한 3명의 미국 과학자에게 돌아갔다.

이번에 노벨 수상자가 된 엘리자베스 블랙번(61), 캐롤 글라이더(48), 잭 조스탁(57) 박사는 염색체가 텔로미어와 텔로메라아제 효소에 의해 어떻게 보호되는지 발견한 공로를 인정받게 됐다.

삼광의료재단, 한국 서비스품질 우수기업(SQ) 인증 획득

삼광의료재단(SML)은 지난 10월 1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이 수여하는 서비스품질 우수기업(SQ)인증을 획득했다.

검사전문 기관으로서의 국내 최초이며 그 동안 고객서비스를 최우선의 가치로 생각하고 실천한 결과여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는 평가다.

한국 서비스품질 우수기업(SQ) 인증은 기업의 전반적인 서비스품질 수준을 서류심사, 분야별 전문가의 현장평가, 소비자의 임형평가 및 고객평가

등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그 성과가 탁월한 기업에 대하여 정부가 수여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질적인 삶의 향상을 이룰 뿐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나아가 국가의 서비스 경쟁력을 높이는 취지로 시행되고 있다.

황태국 삼광의료재단(SML) 이사장은 “앞으로도 고객만족을 최우선의 가치로 생각하고 보다 나은 고객서비스를 위해 직원들의 꾸준한 교육과 심전을 하겠다”고 강조했다.